

10월 모의고사 핵심 문제 해설

이 해설을 읽으면서 자신이 문제를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기준으로 그 문제의 해설을 대충 읽지않고 모든 문제를 자신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이 글의 내용과 비교하며 읽기를 바랍니다.

01. [2017년 교육청 고3 10월 모의평가 39번]

주어진 문장을 읽으면 찾을 수 있는 평가원 코드는 'the weight of the logs'에서 'the logs' (the + 명사) 이다. 그러나 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지는 못한다. 주어진 문장에서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을 때 가져야 하는 사고방식은 '지문 속에서 근거 찾기'이다. (이는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38번 jet lag 지문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다.) 지문의 지시어, 대명사 그리고 연결사 (논리의 방향)을 이용해서 접근하자.

첫 문장을 통해 전체 지문의 화제는 '바퀴 (wheel)'임을 알 수 있다. 지시어와 대명사에 주목하면 2번 뒤의 문장에 처음으로 'rolling them'에서 'them' 이 나온다. 이 them은 바로 앞의 'heavy objects'를 가리키므로 지칭의 대상이 있다. 그 다음 근거는 3번 뒤의 'the axle'이다. 그러나 3번 전까지 문장에서 axle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적이 없고 주어진 문장의 마지막에 axle이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은 3번 이전의 문장에 삽입되어야 한다. (the + 명사라고 해서 바로 그 문장 앞에 a(n) + 명사가 오는 것은 아니다. 그 문장의 '앞에만' 오면 된다.) 그럼 1번 2번 3번 중 어느 곳에 들어가야 할지를 생각해보자.

아까 우리가 주어진 문장에서 잡아냈던 단서는 'the logs' 였다. 그러면 주어진 문장의 앞에 (단 반드시 바로 앞 문장이라는 것은 아니다) logs에 대한 언급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2번 앞까지는 logs에 대한 언급이 없다. (2번 앞의 문장에 a round log는 단수이고 주어진 문장의 단서는 복수인 the logs이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3번에 삽입될 수 밖에 없다.

02. [2017년 교육청 고3 10월 모의평가 29번]

지문을 한 번 쪽 읽으면 'sniffing'이 중심 화제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주어진 문장을 읽고 Targeting 하는 과정을 통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주관식'으로 찾아보자. 빈칸이 포함된 문장은 Sniffing at an imaginary odor, 즉 상상의 냄새를 맡는 행동이 빈칸하다라는 구조이다. 우리는 지문을 읽으며 상상의 냄새를 맡는 행동이 어떠한 지를 찾으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 수 있다.

7번째 문장 (Preventing eye ~)부터 보면 시각적 상상을 할 때 눈의 움직임을 방해하면 상상하는 대상의 퀄리티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similarly라는 부사로 연결되므로 비슷한 내용이 옴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상상을 할 때 코를 막으면 마찬가지로 상상하는 대상이

덜 생생해진다는 뜻이다. 다음 문장은 sniffing이 안좋은 냄새를 상상할 때 기분 나쁨과 좋은 냄새를 상상할 때 행복을 증가시켜준다고 한다. 이 3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보자.

주어진 내용을 정리하면 '코를 막으면 생동감 ↓', 'sniffing은 대상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증가'시켜준다는 것이다. 이 둘을 정리하면 sniffing은 우리가 대상에 대해 가지는 생각과 느낌을 더욱 강화시켜준다는 뜻이다. 이 내용은 보기의 4번과 일치한다.

<오답률 1위 분석>

오답률 1위는 2번 'mixes various senses into an integrated image'인데 이는 다양한 감각들을 통합된 이미지로 섞는다는 것이다. 지문에서 sniffing이 다양한 감각을 통합시켜준다는 말이 없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2번을 고른 학생은 글의 전체를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03. [2017년 교육청 고3 10월 모의평가 42번]

한 단어 빈칸은 '최대한 주관식' 그리고 '최소한 논리의 방향'을 통해서 풀어야함을 기억하자. 우선 글을 처음부터 쪽 읽으면 전체적인 내용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들이 접하게 된 다양한 정보들을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번에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읽으면서 빈칸에 어떤 내용이 오는 것이 적절할 지 찾는 것은 어렵다. 한 단어 **빈칸이므로 '최대한 주관식'으로 Targeting** 하면서 접근해보자. 마지막 문장은 빈칸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고 한다. 글을 다시 대강 읽으며 어떤 것이 어려웠는지를 찾으면 그것이 빈칸에 들어간다. 첫 문단의 9번째 줄에서 15번째 줄 까지 읽으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데이터의 증가를 따라잡는 것이 사람들의 일로 남겨졌고 불가피하게 정보의 격차를 이끌었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두번째 문단에서 어렵다고 제시한 것은 6번째 문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계산하는 것이 상당한 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다. 이 두가지를 정리하면 기술의 발전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변화를 따라잡는 일을 남기었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이다. 그럼 빈칸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변화를 따라잡기' 혹은 '필요한 정보 찾기'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기를 읽으면 3번이 '따라잡기'라는 의미 (지문의 keep pace with the dramatic growth of data 와 일치) 이므로 3번이 답이 된다.

04.**[2017년 교육청 고3 10월 모의평가 40번]**

이 문제는 (A)가 핵심이므로 (A)에 주목하자.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으면 Children's drawings이 the expression of depth에 대해서 어떠한 지를 묻고 있다. 이 문제 또한 한 단어 빈칸이다. **자신의 주관이 아니라 필자가 한 말을 찾아서 '최대한 주관식' '최소한 논리의 방향'으로 푸는 것이다.** 우선 아이들의 그림이 the expression of depth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Targeting해서 읽어보자.

지문 전체를 읽으면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 (중요성에 따른 대상의 크기 등)을 통해 그림을 그린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찾아야 하는 것은 the expression of depth의 논리의 방향이다. the expression of depth가 지문에서 원근법일지 혹은 아이들의 시각일지를 생각해보자. the expression of depth는 깊이의 표현인데 이를 **'지문을 기준으로'** 읽으면 거리에 따라 보이는 시각적 크기의 차이를 뜻함을 알 수 있다. 즉, 원근법을 의미한다. 지문에서 His drawing (Children's drawing) is consequently more meaningful than a faithful reproduction.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아이들의 그림은 현실을 충실하게 복제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이들의 그림에는 expression of depth가 없다는 논리의 방향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lack이다.

05.**[2017년 교육청 고3 10월 모의평가 35번]**

원래 기존의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쪽 읽어 내려가면 한 문장이 전혀 다른 화제를 언급하고 있어 손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다. 하지만 35번과 같이 고난이도의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문제에 명시되어 있듯이 전체 흐름, 즉 **논리의 방향**을 통해서 푸는 것이다.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찾기 문제를 풀 때 처음부터 이러한 자세를 갖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쪽 읽고 전혀 감이 오지 않아 다시 읽을 때 취하는 태도이다.

맨 첫 줄을 읽으면 태양열을 모아 에너지를 지구로 보내는 대형 인공위성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은 그들 (대형 인공위성)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되어 있다. 이제 글 전체의 내용은 **'연결사가 없는 이상'** 반드시 대형 인공위성의 잠재력 (태양열을 지구에 보내는 능력)에 관한 내용이어야 한다. 1번 뒤 문장은 태양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양과 필요한 화석 연료 에너지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논리의 방향과 일치한다. 2번 뒤의 문장은 태양열을 지구에 보내는 것이 많은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아직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두번째 문장 'Their potential is vast indeed.'와 논리의 방향이 반대이다. 따라서 2번 문장이 오기 위해서는 **'역접의 연결사'**가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이유를 기준으로 2번을 고르는 것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2번과 3번의 연결성을 보자. 2번이 아직 기술적 문제로 불명확한 상태에 남아있다는 의미이므로 3번도 연결사가 없는 이상 비슷한 내용이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3번 뒤의 문장은 1번의 내용과 논리의 방향이 일치하다. (인공위성의 에너지 공급의 장점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2번이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이다.

06.

[2017년 교육청 고3 10월 모의평가 28번]

People seeking legal advice should be assured, when discussing their rights or obligations with a lawyer, ① which the latter will not disclose to third parties the information provided.

- 출제자의 의도 파악 : 적절한 관계대명사가 쓰였는가?
- 접근 방향 : 필요 없는 성분 (수식, 접속사 등등) 생략
- People should be assured ① which the latter will not disclose the information.
- 적절성 파악 : which 뒤에 주어 (the latter), 동사 (will not disclose), 그리고 목적어 (the information)이 모두 있는 완전한 문장이므로 관계대명사 which는 적절하지 않다. assured의 목적어가 되는 절을 이끌기 위해 which가 아니라 접속사 that이 필요하다.

Only if this duty of confidentiality is respected ② will people feel free to consult lawyers and provide the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lawyer to prepare the client's defense.

- 출제자의 의도 파악 : 도치 구문에서 동사와 주어가 적절하게 쓰였는가?
- 접근 방향 : 원래의 문장으로 순서 배열 + 필요 없는 성분 생략
- People will feel free only if this duty is respected.
- 가정법에서 조동사 will이 적절하게 쓰였다.

Regardless of the type of information ③ disclosed, clients must be certain that it will not be used against them in a court of law, by the authorities or by any other party.

- 출제자의 의도 파악 : 동사가 적절한 태 (수동태 / 능동태)를 갖고 있는가
- 접근 방향 : 본동사의 성질 (타동사 or 자동사) 파악 + 목적어 유무 확인
- disclose 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다. 그러나 주어진 구에서 disclosed 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수동태로 쓰였다 따라서 disclosed는 적절하고 information을 수식하는 과거분사이다.

It is a fundamental condition on which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s a whole ⑤ rests.

- 출제자의 의도 파악 : 적절한 동사의 형태 (시제, 수, 태)가 쓰였는가
- 접근 방향 : 문장 구조 파악
- on which 이후로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한다. 수식 성분인 of justice 와 as a whole 을 생략하면 주어 the administration이 남는다. 이는 단수 명사이고 주절의 It is a fundamental condition을 통해 현재형임을 알 수 있으므로 rests는 적절하다.

07.

[2017년 교육청 고3 10월 모의평가 34번]

글의 전체 내용이 봉 뜨는 어려운 지문이다. 해석을 하여도 내용이 와닿지 않고 핵심적인 문장을 찾기도 힘들다. 이때 가져야 할 태도는 해석되는 부분만 가지고 다른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고 나아가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것이다.

한 번 지문을 읽으면 Renewal and reform가 전체 화제임을 잡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2번째 문장에서 이러한 과정의 핵심은 a search within one's own mind for a model, 즉 모형에 대한 마음속 탐색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건축가와 오두막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는데 역접의 연결사 Nonetheless가 나오므로 연결사 뒤 쪽의 부분에 주목해서 해석하자. 그 뒤는 '물리적 실체의 부재가 renewal of present practices를 위한 그것 (물리적 실체)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이다. 즉 'renewal of present practices를 위해선 물리적 실체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이고, 물리적 실체는 아까 해석한 모형에 대한 마음속 탐색에서 '모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물리적 실체에 대한 마음속 탐색이 renewals and reform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If a desired thing부터 환상속에 존재하는, 즉 꿈과 소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그리고 그것 (a desired thing)의 복원은 필연적으로 빈칸에 근거한 해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복원은 앞에서 언급되어 온 renewal and reform를 의미한다. 그러면 a desired thing 은 어떤 것에 근거를 둔 해석으로 인해 복원(reform)될까? 아까 잡은 근거인 '물리적 실체에 대한 마음속 탐색'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빈칸이 포함된 문장의 interpretations은 마음속 탐색이고 이 탐색은 물리적 실체에 근거해야 함을 잡아낼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은 물리적 실체(= 모형)이다. 따라서 5번의 resemblances가 유사물이므로 물리적 실체(= 모형)과 같은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resemblances는 우리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getting to it will only be possible via dreams and wishes) 존재하지 않는 대상(=a desired thing resides in paradise)를 본뜬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renewal and reform 할 대상의 물리적 실체이자 모형이 맞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08.

[2017년 교육청 고3 10월 모의평가 36번]

정답을 가르는 평가원 Code가 명확하며 꽤 난이도 있는 문장의 해석을 요구하는 좋은 문제이다. 특히 정답을 결정지을 수 있는 평가원 Code가 많으므로 이를 모두 이용하여 답을 골라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주어진 문장을 해석하면 서양에서의 혁명은 아는 것이 많은 대중이 듣고 전문가와 대가에 의해서만 연주된다는 뜻이다.

먼저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문단을 골라보자. (A)에서 평가원 코드는 To this extent의 'this'이다. To this extent만으로는 바로 앞 문장에 필요한 extent(정도)에 대해서 찾기 힘들므로 (A)는 일단 넘어가자. 이번엔 (B)를 고려해보자. (B)의 평가원 코드는 such events의 such이다. 주어진 문장에서 events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들이나 행사들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B)는 주어진 문장 바로 다음에 올 수 없다. 그 다음으로 (C)를 생각하면 (C)에서 잡아낼 수 있는 평가원 Code는 연결사 'That is'이다. 주어진 문장 바로 다음에 (C)가 온다면, That is 는 '즉'이라는 뜻이므로 주어진 문장도 동일한 내용이 이어져야 한다. (C)를 해석하면 특별히 훈련받은 음악가들이 연주하고 청중이 음악을 들으며 음악적 예술성에 대해 생각하도록 기대되었다는 뜻이다. 특별히 훈련받은 음악가들이 연주한다는 것은 주어진 문장의 'performed only by experts and master'와 연결되고, 음악적 예술성에 대해 사고하도록 기대된 청중은 'listened to by a knowledgeable public'과 연결된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 바로 다음에는 (C)가 와야 한다.

이제 아까 찾은 평가원 Code를 이용해 (C) 다음에 이어질 문장을 찾아보자. 우선 (A) 문장을 해석하면 '이런 정도로, 대부분의 문화에서 communal music-making과 special ritual and ceremonial music을 모두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B) 문장은 '그러한 events 뿐만 아니라, communal music-making도 있었다'라는 뜻이다. (C) 다음에 바로 (A)가 이어진다고 생각해보자. (C)는 특별히 훈련받은 음악가들이 연주하고 청중이 음악을 들으며 음악적 예술성에 대해 생각하도록 기대되었다는 내용이다. 그 뒤에 (A)의 To this extent가 오면 this extent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말은 찾기 힘들지만 논리의 방향이 '특별한 자들에 의해서 음악이 연주되고 즐겨졌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서는 special ritual and ceremonial music뿐만 아니라 communal music도 가졌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연결될 수 없다.

그렇다면 (C) - (B) - (A) 순서로 이어져야 한다. 이 순서를 평가원 Code를 단서로 잡아 적절한지 다시 확인해보자. (C)에서 특별한 자들에 의해서 향유되는 음악에 대해서 제시되었다. 그리고 (B)의 such events는 주어진 문장과 (C) 전체를 포괄하는 사건임을 추론할 수 있다. (주어진 내용만 근거해서 events를 잡아낸다면, 특별한 자들에 의해서만 음악이 향유되었고 이러한 전통으로부터 악기와 보컬의 형태가 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설지에는 such events가 '그러한 음악 공연'이라고 되어있지만 주어진 문장과 (C)는 음악 공연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는 이 문제의 지문이 포함된 논문 (혹은 글)에서 문제를 제작할 때 생각 오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events에 대응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B)에서 또 다른 평가원 Code는 there was also communal music-making에서 'also'이다. also는 나열 될 때 쓰는 것이므로 화제는 같고 소재는 다른 새로운 내용이 제시될 때 사용된다. (C)에서 특별한 자들과 관련된 music-making이 제시되었고 (B)에서는 모두가 참여하는 communal music-making이 제시되었다. 이는 music-making이라는 동일한 화제를 갖고 있지만 음악을 즐기는 계층이라는 소재가 다르므로 also로 적절하게 이어진다. 그 다음 (A)에서 To this extent는 '주어진 문장 & (C) + (B)' 포괄하는 지시어이다. 주어진 문장과 (C)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즐기는 음악을, (B)에서 모두가 즐기는 음악을 제시했으므로 이런 정도로, 대부분의 문화가 communal music-making과 special ritual and ceremonial music을 모두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C) - (B) - (A)가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정리>

Special ritual and ceremonial music을 △로 communal music-making을 ▽로 논리의 방향을 잡는다면, 주어진 문장과 (C)는 △에 관한 내용 / (B)는 ▽에 관한 내용 / (A)는 △와 ▽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09. [2017년 교육청 고3 10월 모의평가 38번]

오답률 1위를 달성할 만큼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가져야 할 태도는 (좋은 문제라면) 반드시 문제가 평가원 Code를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 문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접근해보자.

우선 주어진 문장을 읽으면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다. 지시어나 대명사도 없고 연결사도 없어 앞뒤의 논리의 방향을 예측할 수도 없다. 일단 주어진 문장의 Should 가정법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가정하고 풀어보자. 해석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면 주어진 문장이 '두 가지 생각이

직접적으로 서로 모순 / 저항이 발생하고 개념은 힘이 된다' 과 같이 붕 뜨는 느낌으로 해석될 것이다. 자, 이제 지문을 읽으며 평가원 Code를 찾아보자.

1번 전까지 문장은 idea는 동적이며 다른 idea와 상호작용한다는 뜻이다. 1번 뒤 문장을 보면 ideas가 다른 아이디어를 끌어당기고 결합할 수 있다 (attract and combine with) 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전 문장의 '상호작용할 수 있다'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2번 뒤의 문장도 비슷한 아이디어는 서로를 끌어당기고 더욱 복잡한 아이디어와 결합한다고 했으므로 2번 뒤의 문장까지 'idea는 다른 아이디어와 상호작용한다'라는 일관된 내용을 갖고 이어진다. 3번 뒤에 평가원 Code 'However'이 있다. 3번 전까지 'idea는 다른 아이디어와 상호작용한다'라는 내용이었으므로 역접의 연결사 'However' 뒤에는 'idea가 다른 아이디어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이어져야 '논리의 방향'이 맞다. 3번 뒤에서 'they may continue to exist without association' 이라고 ideas가 결합없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이는 상호작용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논리의 방향이 역접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4번 뒤에는 'This'라는 평가원 Code가 있다. 따라서 4번의 바로 앞 문장에는 반드시 'This'에 해당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4번 뒤에서 This가 그들 (idea)을 약하게 하고 가라앉게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자 그럼 여기서 This가 4번 전의 문장에 있을지, 주어진 문장에 있을지를 생각해보자. 4번 전의 문장에서 This가 될 수 있는 대상은 'continue to exist without association'이다. 즉, 결합 없이 존재하는 것이 idea를 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적절해 보인다. 이번에는 주어진 문장이 4번에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서 This가 될 수 있는 것은 '저항이 일어나 개념이 힘이 된다'는 것이다. 이도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4번 앞에 two ideas are unlike (두 생각이 비슷하지 않다)라고 주어져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주어진 문장의 two ideas directly contradict one another (두 아이디어의 직접적인 모순)과의 연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것이 정답의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5번의 뒤의 문장도 살펴봐야 한다.

정답을 가르는 평가원 Code는 '논리의 방향'이다. 이 문제가 어려웠던 까닭은 논리의 방향이 성질의 +/-로 나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4번 뒤의 문장에서 결론은 eventually sink below the "threshold of consciousness", 즉 threshold의 뜻을 모르더라도 의식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다. 5번 뒤의 문장에서는 propels one of them beyond consciousness, 즉 의식 너머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4번에서는 의식 아래로 가라앉는다고 했는데 5번에서는 의식의 너머로 간다고 했으므로 이로 인해 4번과 5번이 연결사나 화제의 전환없이 이어질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다시 한 번 정답이 5번임을 검토해보자. 이 지문의 처음에는 Similar ideas에 대해서 언급했고 그 다음은 4번 앞의 two ideas are unlike, 즉 비슷하지 않은 ideas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리고 주어진 문장에서 마지막으로 서로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두가지 ideas를 제시한 것이다. 3번 뒤의 문장과 4번 뒤의 문장이 묶여서 비슷하지 않은 ideas는 결국 의식의 경계(threshold) 아래로 가라앉는 다는 것이고, 주어진 문장과 5번 뒤의 문장이 묶여서 서로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두 가지 생각은 서로를 의식 너머로, 즉 무의식 ("the unconscious")으로 밀어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다. 결국 4번 뒤의 This는 'continues to exist without association'이 된다.